

권 두 언

노동운동의 정책과제 해결을 위하여

김 금 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4월28일 2백 명이 넘는 노동조합 간부와 노동단체 대표, 연구소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학계 인사와 개인들의 참여로 그 출범을 보게 되었다.

1. 연구소 창립이 갖는 의미

연구소는 창립 취지문에서 “이제 노동운동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대내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주요 과제의 본질을 정확히 구명함과 아울러 실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한국노동운동의 발전도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적 요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노동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노동운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연구소의 사업목표를 제시했다.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노동운동의 발전에서 요구되는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창출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이런 작업은 매우 절박하게 요청되고 있으며,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수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연구소가 걸어진 짐은 무겁고, 헤쳐 나가야할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연구소의 창립 의의와 역할은 더욱 분명한 형태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2. 노동조합운동의 ‘사회개혁’ 요구

마침 올 임금인상 투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임금투쟁이 갖는 의의를 여기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거니와, 95년 임금투쟁은 제도개선 투쟁이 강도를 더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이전에도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중요성을 지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 노동조합운동의 요구 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는 그만한 연유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노동조합운동이 ‘사회개혁’ 요구를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 것은, 사업장 차원의 임금·노동조건 개선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상태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말하자면 제도나 정책, 나아가서는 사회체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노동자계급의 지위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욱이 자본의 ‘경영합리화’ 공세가 날을 세운 듯 날카롭게 다가서고, 권력의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가 무게를 더할 수밖에 없다. 한편, 노동조합이 사회개혁 투쟁을 벌이게 된 것은 투쟁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민주노총 준비위)가 내건 사회개혁 요구의 내용은 이렇다. (1)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2)국민연금의 민주적 관리 운영, (3)세제 및 재정개혁, (4)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 (5)노동관계법 개정 등이다. ‘한국 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도 사회경제 정책·제도 개선 요구를 제기했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실질소득의 보장, 사회적 형평성 제고, 근로조건 관련 제도 개선,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제고, 산업민주주의 실현 등이다.

노동조합운동이 표방한 당면 사회개혁 요구를 간추리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비롯하여 세제개혁, 주택문제 해결과 물가안정, 직업훈련제도 개선, 경제민주주의 또는 산업민주주의 실현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노동조합운동이 추진하는 사회개혁 투쟁이 주로 제도개선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정황을 요량하여 우선적으로 선택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3. 전면에 떠오른 제도·정책 과제

노동운동이 밀고 나가는 사회개혁 투쟁은, 노동현장에서의 경제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별도 차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현장 요구에서 출발하여 사회개혁의 요구들을 발전시키는 형태로서 전개된다. 현장 내의 임금 요구에서 분배제도 개선과 세제개혁 요구로, 사업장 내의 노동환경 개선 투쟁에서 의료개혁 또는 환경오염 저지 투쟁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서 교통·통근문제 나아가서는 주택·도시계획 문제의 추구로, 해고방지 투쟁에서 고용보장 투쟁으로, 복지후생 확충 요구에서 사회보장 중진 요구로, 사내 교육훈련 문제에서 교육개혁 문제로, 직장 민주화 투쟁에서 산업민주화 또는 정치적 민주화 실현 투쟁으로 진전되는 것이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정책 과제는 제도개선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국민적인 생활옹호 투쟁을 비롯하여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적인 권리 확보 투쟁, 현대적 빈곤의 근원인 종속적 독점자본주의의 경제적·정치적 지배에 대한 민주적 규제와 개혁 등 다면적인 정책 요구와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 과제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정책 과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할 나위 없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4. 정책적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노동운동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는, 임금투쟁이나 '합리화'반대 투쟁 등 일상적이고 경제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제도개선과 정책 과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을 촉진하고 있다. 이런 성격의 투쟁은 개별 자본을 상대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종체적 형태의 자본과 국가권력을 향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투쟁 주체의 강력한 정책적, 정치적 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이 통상적으로 내세우는 제도적 요구는, 최저임금제의 확립을 비롯하여 주40시간제의 획득, 산업재해·직업병의 예방과 생활보장에 대한 법적 조치,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의 확충,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 확립, 공적 직업훈련제도의 충실,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의 정비·개선 등에 집약된다. 이런 제도개선 요구는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포괄하는 것이고, 민주적 관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편, 정책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더 한층 광범하다. 국민생활 옹호에 관한 요구는 세제문제, 물가문제, 주택문제, 공해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 등에 모아진다. 노동조합운동이 전개하는 국민 '생활투쟁'은, 노동자계급이 국민 구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자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현대자본주의의 지배형태가 매우 광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동조합운동이 국민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음으로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적인 권리의 확보를 위한 요구는 기본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나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장기적인 파쇼 통치 아래서 국민의 기본인권이나 노동3권이 무참히 침해되었고 지금도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터이어서, 이 요구의 실현은 주요한 투쟁 과제로 제기된다.

독점자본에 대한 민주적 규제만 해도 그렇다.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전면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조건에서, 독점자본의 경제적·정치적 지배는 실로 막강하다. 독점자본의 이 같은 지배력에 대한 민주적 규제는 당연히 노동운동의 정책과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독점자본 규제에 관련되는 정책적 과제는 산업·경제와 행정의 민주적 개

혁 요구로 구체화되고, 그것은 권력의 문제 또는 정치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것은 독점 자본의 축적된 강대한 물질적 힘과 정치적·사회적 힘을 전체 민주세력의 정치적 동맹에 의해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운동이 당면한 주요 정책적 과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시된다. 정책적 요구는 충실한 근거를 지녀야만 하고 전문성과 과학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운동의 투쟁 역량과 정치적 역량이 추진력으로 발휘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정치적 역량 강화나 정치적 진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자 대중 속에 과학적 이념을 넓혀 나감과 동시에 정책적 또는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올바른 전략·전술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정확히 결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도,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활동과 투쟁방식, 노동운동에 가해지는 통제와 지배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법 등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지도집단과 간부들이 자신들의 사상과 이론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은 수행하면서 노동운동의 궁극적 목표 실현을 지향하는 운동이념과 대중활동의 원칙들을 체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한편으로 노동운동이 추구하는 정책적 과제의 해결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요구의 정당성과 이론적 토대의 구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실천의 올바른 방향 설정이 끈질기게 모색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연구소 설립의 목적도 바로 이런 작업 수행에 이 바지하는 데 있다.

연구소는 이제 갓 첫 발을 내딛었으나 설립에 참여한 여러 조직과 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운동의 발전에서 요구되는 자기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의지를 모아 다짐한다.